

“사립학교, 시행명령 묵살하면 예산 지원 안한다”

서울시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
학급수·정원 감축 등 조정 조치도
사무직원 채용시 공채로 진행해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본격 가동된다. 앞으로 시정 명령을 미이행하는 사립학교는 정원 감축이나 예산지원 제외 등 행·재정 제재를 받는다. 올해 대규모 사립유치원에 의무 도입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전체 사립학교로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한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추진 계획’을 토대로 시대적 요구에 맞춰 보완됐다. 관할청의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와 인사관리 및 사학지원, 재정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계획은 4개 분야 16개 과제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행·재정적 제재



서울시교육청.

기준 마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 ▲사립 교원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확대 ▲사립학교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의무화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임시이사 선임 법인에 대한 정상화 지원 ▲사학업무 전담부서 신설 ▲사학기관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교직원 연수 강화 등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기준 ‘사학 현안 조정

위원회’를 보완, 내부위원 10명과 학계와 법조계 외부위원 3명이 참여하는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사학 현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제재 기준과 처분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특히,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미이행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 기준을 마련해 학급수나 학생정원을 조정하

고 각종 예산 지원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행·재정적 제재 대상 기준은 학생교육과 학사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나, 성적비리, 성비위·생활지도, 법인운영 부적정 등이다.

지금까지는 ‘사립학교가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은 조치를 할 수 있다’(중종등교육법 시행령)고 돼 있어 제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올해 3월부터 정원 200명 이상 대규모 사립유치원에 의무도입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모든 초중고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초중고와 특수학교 10곳과 학령인정 평생교육 시설 3곳,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 24곳 등 에듀파인을 미도입한 사학에 이행 권고와 그에 따른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립학교에서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공개채용으로 해야 하고, 사립교원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이 확대되고, 여러 사립학교 법인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위탁채용 사립학교에는 2000만원 이내 인센티브 등이 지원된다.

임시이사 선임된 학교법인인 법인에서 요청시 안정적인 학교정상화를 위해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견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건전 사학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맞춤형 연수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할청의 노력이 사립학교법의 개정 없이는 부분적 조치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가 ▲중등 이하 사립학교 업무 담당 독립 부서 설치 ▲사립학교법 체계 정비(사립대학법과 중등사립학교법 이원화) ▲사립 교직원 인사정책 수립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있는 행정행위 기준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삼육대 학생들이 인성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삼육대학교

삼육대 경기도민에 인성교육 프로그램

‘체인지업캠퍼스 양평캠프’ 위탁 운영

삼육대(총장 김성익)는 체인지업캠퍼스(옛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의 미래교육사업을 위탁받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삼육대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8일 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9 체인지업캠퍼스 양평본부 인성교육 분야 교육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삼육대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사업비 2억원을

보조받아 양평캠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위탁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경기도민(초·중·고·일반·교사) 2760명을 대상으로 30여회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주니어MVP캠프 ▲중독예방캠프 ▲패스파인더 캠프 ▲장애 인식 개선 및 유니버설 디자인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공감교육 ▲인성교육 교사연수 등이다.

/한용수 기자

세종대 박진규 동문, 에넥스 신임 회장 취임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호)는 경영학과 박진규 동문(79학번·사진)이 지난 1일 종합가구기업(주)에넥스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회장은 금융위기로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지난 2010년 에넥스 대표이사로 취임해 현장 경영과 기업·소비자간 거래 비중을 늘리는 사업 구조 재편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2013년에는 흑자전환에 성공한 이후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박 회장은 “향후 에넥스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탄탄한 재무구조와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



조했다.

한편 세종대 경영학부는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인 Times Higher Education (THE)이 발표한 2019년 세계대학 평가에서 경영·경제 부문 국내 5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26위, 세계 순위로는 151위다. 지난 2007년 국내 4번째로 세계 최고 권위의 AACSB인증을 취득한 이후 3회 연속 인증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한용수 기자

롯데 신입 공채... “직무역량·잠재력 중요”

14일부터 27일까지 서류접수
식품·유통 등 224개 부문 모집

롯데그룹은 오는 14일부터 2019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및 하계 인턴십 채용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회사는 식품, 관광·서비스, 유통, 화학, 건설·제조 등 41개사이며, 모집 직무는 영업관리, 마케팅, IT, UX, 생산관리, 재무 등 224개다.

우선 상반기 A 그레이드(grade) 신입사원 채용은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롯데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접수를 받는다. 신입채용 전형 절차는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엘렘(L-TAB) →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엘렘은 4월 27일에 그룹 통합으로 진행된다. 면접전형은 각 계열사 일정에 맞춰 5월에 진행되며, 지원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하루에 모든 면접을 끝내는 ‘원스탑 면접’ 기조를 유지한다. 또한 엘렘과 면접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에게는 전형결과 피드백을 이메일로 제공할 계획이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6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롯데는 채용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지원자의 직무역량과 잠재력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능력중심 채용 기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I 시스템을 서류전형에 활용할 계획이다. AI 시스템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해 롯데의 인재상에 부합하고 해당 직무에 적합한 지원자를 선발하



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표절여부 분석을 통해 지원자의 진실성 및 성실성을 판단하는데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롯데는 AI 시스템을 통해 모든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세밀히 검토할 수 있는 만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수 인재 발굴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AI 시스템이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필요인재부합도 분석결과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기존 서류전형의 평가방법과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표절여부 분석은 전형 결과에 직접 반영된다.

또한 면접을 주관하는 면접위원의 역량 증진시켜 면접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지원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예비면접위원 280명을 대상으로 ‘면

접위원 인증과정’을 운영한다. 2010년부터 시행된 면접위원 인증과정은 채용 면접을 담당하는 면접위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면접기술, 평가역량은 물론 대화매너, 지원자를 대하는 태도 등을 익히게 되며, 평가를 통해 면접위원 자격을 부여한다.

롯데는 이번 채용에서도 다양성을 중시하는 열린 채용 원칙을 이어간다. 일반전형과는 별개로 3월 14일부터 롯데건설, 롯데정보통신, 롯데케미칼 등 17개 계열사에서 장애인 특별 전형을 함께 진행한다.

하계 인턴십 채용과 ‘SPEC태클’ 전형은 5월 2일부터 지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계 인턴사원은 8주간의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하게 되며, 이후 실습 평가와 최종 면접을 통해 차기 A 그레이드 신입사원으로 전환채용될 수 있다.

롯데 고유 블라인드 채용 브랜드인 SP ECE태클 전형은 지원서 접수 시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해당 직무와 관련된 기획서나 제안서만 받으며, 이후 회사별/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주제 관련 미션수행이나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한다. 롯데는 올해 SPEC태클 전형부터 면접 당일에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습이나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지원자의 직무역량 검증에 더욱 힘 쏟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SPEC태클 상표등록을 지난해 출원해 올해 3월 내로 등록 완료하는 등 그룹의 대표 채용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공채 취업생 평균 스펙은?

학점 3.51점
토익 772점
61% 자격증

올해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취업생의 학점 평균은 3.51, 토익 점수는 772점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직무중심채용과 블라인드채용 트렌드에 맞춘 취업생의 스펙도 눈에 띈다.

10일 잡코리아가 2019년 상반기 신입공채에 지원하는 취업준비생 974명을 대상으로 공채 지원자 평균 스펙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먼저 직무분야 자격증과 인턴, 대외활동 경험과 같이 직무와 연관되는 경험을 쌓은 취업생들이 많았다. 전공분야 자격증 보유 비율은 60.9%로 10명 중 6명은 전공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공채 취업생들의 졸업학점은 4.5점 만점에 3.51점으로 집계됐다.

/한용수 기자